

난치성 소아 코밑 사마귀가 천궁계지탕가미방으로 호전된 치험 1례

이혁준¹ · 김은진² · 박성식^{3,*}

¹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전문수련의, ²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소아과 교수,
³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수

Abstract

A Case Report of Recalcitrant Subnasal Warts in a Child Treated with Cheongungkyeoji-tang-gamibang

Hyeok-Jun Lee¹ · Eun-Jin Kim² · Seong-Sik Park^{3,*}

^{1,3}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

²Dept.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

Objectives

To report a case of recalcitrant subnasal warts that had persisted for over 2 years with treatment failure to various treatments including cryotherapy, laser therapy, and immunotherapy in a child treated with *Cheongungkyeoji-tang-gamibang*

Methods

A 6-year-old Soeumin boy with recalcitrant subnasal warts that presented as two protruding lesions beneath the nose measuring 3.5 mm and 1.0 mm in length was treated with *Cheongungkyeoji-tang-gamibang*; no acupuncture, moxibustion, or other procedures were performed.

Results

At approximately 3 weeks, one lesion had resolved and the other was nearly flat; by week 5, both lesions had completely cleared. No scarring, pigmentary changes, or adverse events occurred, and no recurrence was observed at a 12-week follow-up.

Conclusions

Cheongungkyeoji-tang-gamibang may be a safe and effective option for recalcitrant subnasal warts in a child.

Key Words : Case report; Wart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eumin; *Cheongungkyeoji-tang-gamibang*

Received 29, October 2025 Revised 31, October 2025 Accepted 19, November 2025

*Corresponding author: Seong-Sik Par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undang orient medical hospital of Dongguk university,
87-2, Sunae 3-dong, Bundang-gu, Seoungnam-si, Gyeonggi-do, 463-865, Rep. of Korea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 and Immune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서론

보통사마귀(verruca vulgaris)는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의 임상적 발현 중 하나이다¹. 병변은 과각화된 돔 모양의 구진·결절 형태로 나타나며, 주로 사람 간 접촉이나 오염 물체를 통해 전파되어 손가락·손·무릎·팔꿈치 등 외상 부위에 호발한다². 사마귀는 많은 경우 저절로 소실되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된 사마귀는 치료 저항성이 높으며 소실과 재발을 예측하기 어려워 치료방법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².

사마귀 치료에서 난치성의 정의에 대해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일부 문헌은 공통적으로 임상에서 1~2년 이상 지속되고 두 가지 이상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한다^{3,4}. 한편 임상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이해에 따라 용어를 사용하는데, ‘재발성’³, ‘저항성’³, ‘중증’⁵, ‘지속성’⁵ 등의 용어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소아에서 사마귀는 흔하며 치료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⁶. 소아에서 사마귀는 자발적으로 퇴행하기도 하지만 치료 없이 2년이 지난 후에 최대 40%의 사마귀가 지속될 수 있다⁶. 손·얼굴 등 노출 부위에 생긴 사마귀는 대개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며¹, 부끄러움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환자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한의학에서는 사마귀를 疣目, 千日瘡, 疣, 疣瘡, 疣目瘡 등의 범주로 보았다⁷. 보통사마귀에 대한 국내 한의학 연구로는 성인의 손발 사마귀에서 藿香正氣散加味方과 뜸 치료를 병행해 호전을 보인 문⁸ 등의 증례보고가 있었고, 사상처방 활용 사례로는 성인의 손톱사마귀에서 太陰調胃湯加味方 등을 사용한 조⁹ 등의 증례보고 1례가 있었다. 한편 천궁계지탕과 관련된 논문은 중풍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1편만이 확인되었으며¹⁰ 사상체질면역학회지에는 사마귀 관련 임상 보고가 현재까지 없었다.

본 증례는 2년 이상 지속되며 냉동치료·레이저치료·면역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은 소아의 코 밑 보통사마귀를 川芎桂枝湯加味方으

로 치료한 사례이다. 한약 단독치료 후 단기간(3주 이내) 경과 관찰에서 병변이 육안상 거의 소실되었고 이후 2달간의 경과관찰에서 재발하지 않았으며, 한약 복용 중 식사·수면·배변 등 신체 상태의 호전과 표정의 밝아짐·말수 증가 등 정서적 안정을 동반한 결과가 함께 관찰되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증례

본 연구는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로 환자와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었으며, 본원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거쳐 면제받았다.

1. **성명**: 심OO (M/6)

2. **주소증**: 보통사마귀 (코 밑 피부 2개). 코 밑에 피부 표면에 돌출한 돔형 구진이 2개(좌 3.5 mm, 우 1.0mm)가 존재하였으며. 만질 때 약간의 통증과 불편감이 있다고 하였다.

3. **발병일**: 2023년 초 무렵

4. **치료기간**: 2025년 6월 30일 ~ 2025년 9월 22일

5. **과거력**: 특이병력 없음

6. **가족력**

부: 유년기에 손가락 사마귀가 있었으며, 2018년 발바닥에 사마귀가 발생하였으나 외용 치료 후 호전되었다.

모: 2018년 남편에게 사마귀가 발생한 이후 발바닥에 사마귀가 나타났으나, 임신 중이어서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였다. 출산 후 2022년 말~2023년 초 자궁경부암 백신(가다실)을 3차 까지 접종하였으며, 접종 1개월 후 사마귀가 호전되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냉동 치료를 시행하였다.

7. 복용약물: 별무

8. 현병력

환이는 만 6세 남아로, 2023년 초 무렵 코 밑 피부에 단일 사마귀 병변이 발생하였다. 최초 가정의학과 진료 후 피부과로 연계되어 총 4회의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4차 고출력 레이저 후 상처가 발생하고 상처 치유 전 병변의 재증식이 관찰되었다. 이후 해당 병원 측에서 레이저 치료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냉동치료와 외용제를 병행하였으나 심한 통증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웠고 병변은 간헐적으로 신생 및 증식을 보였다. 이후 병변 악화와 통증, 흉터 위험, 치료 장기화 및 경제적 부담으로 2024년 가을경 다른 피부과로 전원하여 국소 부위 약물 분사 면역치료를 약 20회 시행 받고 다시 병변부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뚜렷한 호전은 없었다. 내원 약 1주 전부터 울무를 자가 도포하기 시작하였으며, 2025년 6월 30일 코 밑 보통 사마귀 2개를 주소로 본원 사상체질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9. 사상체질진단

1) 체형기상(體形氣象)

상기 환자 신장 116.8cm, 체중 22kg, 체질량지수 16.1kg/m²의 정상체형이었고, 늑골각은 예각이었으며, 5부위 체간 계측 결과(cm)는 18.0, 18.7, 19.3, 18.3, 16.5 이었다.

2) 용모사기(容貌詞氣)

얼굴은 둥글고 부드러운 인상이며, 눈꼬리가 약간 내려가 있었다. 코와 입은 크지 않고 얼굴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피부색은 흰 편이었다.

3) 성질재간(性質材幹)

평소 활발하고 원만한 성격이었으나 초진 시에는 진료실에서 시선을 회피하거나 말수가 적은 모습을 보였다.

4) 소증(素證) 및 현증(現證)

- (1) 수면: 평소 9시간 수면. 수면 중 약간의 땀이 나며 수면의 질이 낮다. (09:00 pm - 6:00~7:00 am)
- (2) 식사: 평소 식사량이 적은 편. 3끼 식사는 잘 하지만 한 끼 식사의 양이 적다. 식욕이 적고 쓴맛을 싫어한다.
- (3) 음수량: 특이사항 없음
- (4) 대변: 초등학교 입학 전 1일 1회 → 입학 후 2~3일 1회
- (5) 소변: 특이사항 없음
- (6) 땀: 수면 중 약간의 땀
- (7) 설진 및 맥진: 舌苔別無, 脈緩

5) 사상체질 및 사상체질병증진단

환아가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설문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상체질과 전문가가 환자의 용모·성질·소증·현증을 종합하여 소음인 울광증으로 진단하였다.

III. 치료 및 경과

1. 치료방법

1) 한약치료

한약 치료는 천궁계지탕(川芎桂枝湯)¹⁾을 기본 처방으로 하여 교이(膠飴) 20g, 녹용(鹿茸) 2g을 추가하였다(Table 1). 1첩을 70cc 2팩으로 추출하여 1일 2회(아침, 저녁 식후 30분~1시간 이내)에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한약은 매 내원마다 10첩 20팩으로 10일분씩 처방하였다.

2) 기타 한방치료

뜸·침치료 및 기타 물리자극 치료는 소아 얼굴 부위의 화상·흉터 위험과 통증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3) 식이 및 생활 지도

복약 기간 동안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하였고, 규칙적 식사·충분한 수면·보온을 지도하였다. 발열·발진·소양감·구토·설사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즉시 내원 또는 연락하도록 안내하였다.

4) 양방치료 및 기타치료

초진 시 보호자가 울무 외용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한약 치료 시작 후 부착의 번거로움으로 스스로 중지하였다. 본원 치료 기간 중 한약 복용 외 추가적인 치료는 없었다.

Table 1. Composition of Cheongungkyeoji-tang-gamibang in 1 Cheop

Herb	Amount(g)
<i>Cinnamomi Ramulus</i> (桂枝)	12
<i>Paeoniae Radix Alba</i> (白芍藥)	8
<i>Glycyrrhizae Radix</i> (炙甘草)	4
<i>Citri Pericarpium</i> (陳皮)	4
<i>Atractylodis Rhizoma</i> (蒼朮)	4
<i>Rhizoma Cnidii</i> (川芎)	4
<i>Zingiberis Rhizoma Recens</i> (生薑)	3
<i>Jujubae Fructus</i> (大棗)	2
<i>Saccharum Granorum</i> (膠飴)	20
<i>Cornu Cervi Pantotrichum</i> (鹿茸)	2
Total	63g

2. 평가방법

1) 소증 변화

식사량, 대변, 수면 중 약간의 땀이 나는 증상, 정서 변화 등을 환자 내원시마다 확인하였다.

2) 사진 변화

환아의 사마귀 병변의 피부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내원시마다 사진 촬영을 하여 기록하였다.

3. 치료경과

1) 2025년 6월 30일(1차 내원) - 초진소견

-병변: 코 밑에 피부 표면에 돌출한 돛형 구진이 2개 관찰되었다. 좌측 병변은 최대 직경 약 3.5 mm, 우측은 약 1.0 mm으로 표면이 돌출되어 있었으며, 스스로 만졌을 때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이 있다고 하였다.

-기타: 하루 세 끼 식사는 모두 하지만 한 끼 식사량은 적었다. 수면 중 약간의 땀이 나고 수면의 질이 낮았으며, 대변 주기는 2~3일에 1회로 변비 경향을 보였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아

1)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川芎桂枝湯, 桂枝 三錢 白芍藥 二錢 川芎 蒼朮 陳皮 甘草 各 一錢 薑 3片 棗 2枚

가 코 및 사마귀로 또래의 시선과 놀림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진료실에서 시선을 회피하고 말수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2) 2025년 7월 22일 (2차 내원)

- 병변: 좌측 병변은 일부 남아있으나 거의 사라져 대부분 평평해졌으며, 우측 병변은 육안상 완전히 소실되었다. 만질 때 느껴지던 통증과 불편감 또한 완전히 소실되었다.
- 기타: 복용 10일 후 내원하려고 하였으나 가족여행 등의 사정으로 늦게 내원하였다. 식사량의 변화는 없었다. 수면 중 땀이 나던 증상은 사라지고 잠을 잘 잔다. 변비 증상은 복용으로 완화되었다가, 가족여행을 가서 처음에는 3-4일 배변이 없었으나, 여행 후에는 2일에 1회로 돌아왔다. 눈맞춤이 조금 늘고 표정이 밝아진 모습을 보였다.

3) 2025년 8월 5일 (3차 내원)

- 병변: 두 병변 모두 외관상 완전히 소실되었다. 흉터나 색소침착은 관찰되지 않았다. 만질 때 통증이나 불편감 없음이 유지되었다.
- 기타: 식사량이 증가하고 식욕이 개선되었다. 수면 중 땀이 나는 증상은 없는 상태로 유지되며 잠을 잘 잔다. 대변 주기는 2일 1회로 변비 증상이 완화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내원시 밝고 활발하며 말수가 많아진 모습을 보였다. 경과관찰을 위해 9월 말 내원하도록 하였다.

4) 2025년 9월 22일 (4차 내원)

- 병변: 두 병변 모두 외관상 완전히 소실된 상태가 유지되었고 재발이 없었다.
- 기타: 식사량과 식욕이 한약 복용 당시보다 줄어들었으며, 한약 복용 중에는 수면시간이 10

Table 2. Changes in Sleep, Diet/Appetite, Bowel Movements, Affect/Behavior, and Prescribed Dose of Cheongungkyeoji-tang-gamibang by Visit

	2025-06-30 (1st visit)	2025-07-22 (2nd visit)	2025-08-05 (3rd visit)	2025-09-22 (4th visit)
Sleep	~9h; mild night sweats; mild sleep-quality reduction	Night sweating resolved; sleeps well	No night sweating; sleeps well	During medication: 10h After finishing meds: sleep time ↓ to ~8h
Diet / Appetite	3 meals/day, small portions; low appetite	No change	portions Increased, appetite improved	During medication: improved After finishing meds: decreased vs during medication.
Bowel movements	q2 - 3 days	Improved → travel caused 3 - 4 days no BM → after travel q2 days	q2 days (maintained)	During medication: q2 days After finishing meds: q2 - 3 days
Affect / Behavior	Reduced eye contact; quiet in clinic	Eye contact slightly increased; brighter facial expression	Bright, active; more talkative	Bright and talkative maintained
Medication (Cheongungkyeoji-tang-gamibang.)	10 cheop / 20 packs × 10 days, BIDPC prescribed	10 cheop / 20 packs × 10 days, BIDPC prescribed	10 cheop / 20 packs × 10 days, BIDPC prescribed	10 cheop / 20 packs × 10 days, BIDPC prescrib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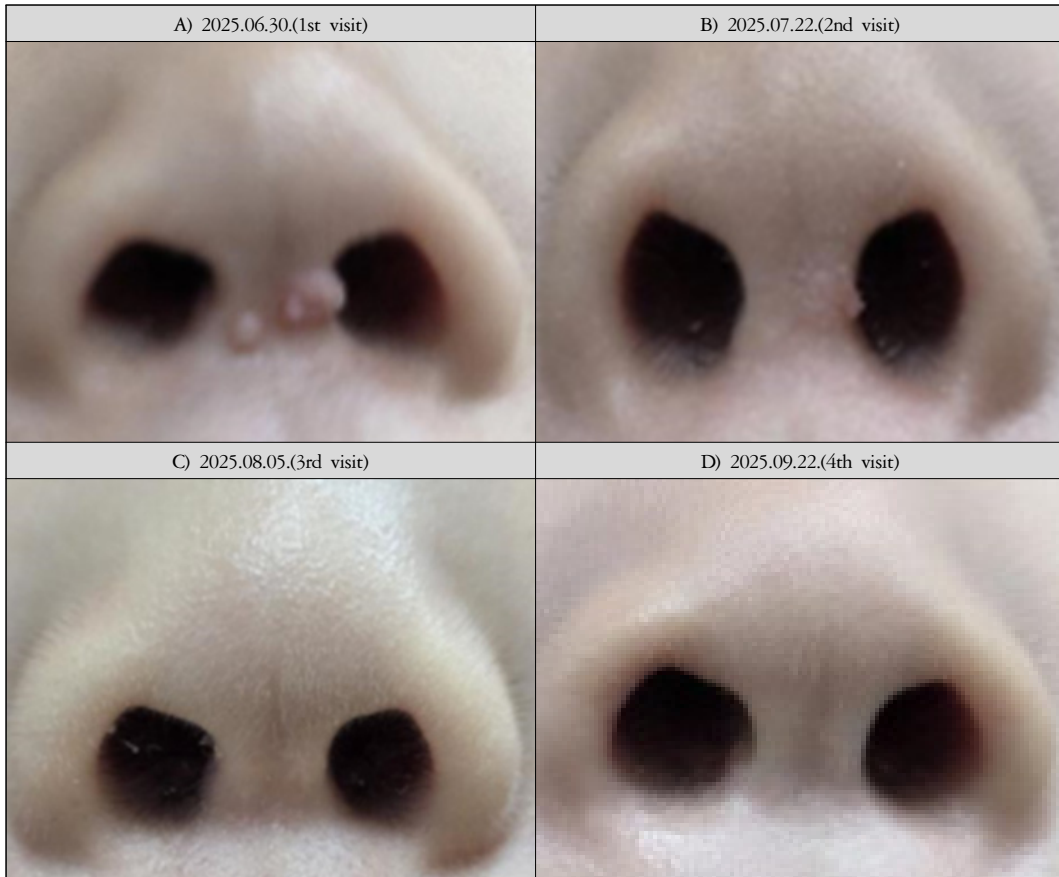


Figure 1. Photographs of showing the clinical course of subnasal warts

시간 정도였으나, 한약을 다 먹은 후에는 8시간 정도로 줄어들었다. 식사량이 한약 복용 중 보다 줄어들었으며, 대변 주기는 한약 복용을 마친 후 2~3일 1회였다. 내원 시 밝고 활발하며 말수가 많아진 모습이 유지되어 치료 종결하였다.

IV. 고찰

보통사마귀의 치료에는 살리실산 도포와 냉동요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이외에도 면역요법·레이저·전기소작술 등이 활용된다¹. 그러나 단일 요법만으

로는 한계가 있어 한 가지 이상의 치료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증·부작용·비용은 치료법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². 소파술 후 소작은 여전히 시행되는 방법이지만 최대 30%에서 흉터와 재발이 보고되며, 살리실산 치료는 장기간 치료와 철저한 환자 순응이 필요하다³. 냉동·레이저 등 침습적 치료는 색소침착·신경 손상·통증·반흔 등 부작용이 흔하며, 종종 고통스럽고 긴 회복 기간을 동반한다⁴. 대안으로 비타민 A 유도체(예: isotretinoin)의 경구요법이 일부 보고되었으나, 대개 12주 이상(≥3개월)의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현재까지 HPV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으며 현재의 사마귀 치료는 징후와 증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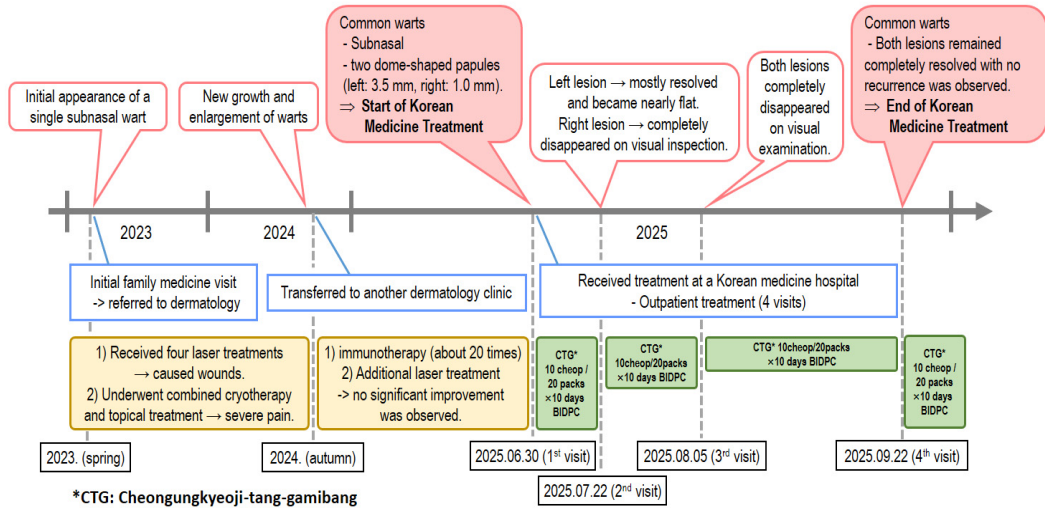


Figure 2. Timeline showing the overall clinical course and treatment history of recalcitrant subnasal warts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 사마귀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불편을 완화하고 자가접종에 의한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있다². 궁극적인 사마귀 치료는 모든 사마귀 또는 큰 비율의 사마귀를 소실시키고, 통증이 없으며, 사마귀 하나 또는 일부만 치료하면 되며, 1회에서 3회의 치료로 충분하며, 반흔을 만들지 않고, 평생의 HPV 면역을 제공하며, 모든 환자에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².

본 증례의 환이는 2023년 초 무렵 코 밑 피부에 단일 사마귀 병변이 발생한 이후 레이저 치료, 냉동치료와 외용제 병행치료, 면역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다양한 치료에도 병변이 간헐적으로 신생, 증식을 보였으며 치료 장기화, 경제적 부담 등으로 기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워 2025년 6월 30일 본원 사상체질과 외래에 최초 내원하였다. 초진 당시 한 끼 식사량이 적으며 2~3일에 한 번 대변을 보는 변비 경향, 수면 중 약간의 땀이 나며 수면의 질이 낮은 소견을 보였으며, 이전 치료 과정에서 통증과 상처가 반복되었고 또래의 시선·놀림 등으로 인해 초진 시 눈맞춤과 말수가 감소한 상태였다.

한방치료의 경우 침치료와 뜸치료는 시행하지 않

았다. 소이는 통증을 동반한 치료에 대한 수용도가 낮으며¹³ 빠른 결과를 보이고 효과적이며 통증이 없는 치료가 바람직하다². 뜸치료는 신생아·소아·감각장애 환자에서 화상·알레르기·감염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고, 피하조직이 얇은 부위에서는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을 피해야 한다¹⁴. 또한 수염 부위 사마귀의 치료 시에는 인접 피부 손상으로 감염이 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¹⁵. 따라서 환아의 통증 부담을 줄이고 안전부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약 단독치료를 선택하였다.

환이는 용모사기·성질재간·소증·현증을 종합하여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소음인 울광증으로 진단되었다. 대변은 2~3일에 1회 보는 경향을 보였으나 배변 주기의 불규칙성이나 불편감은 호소하지 않았으며, 수면 중 약간의 땀이 나는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평소 생활 중이나 더위에도 땀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신수열표열병 울광병 초증으로 변증하였으며, 이에 천궁계지탕을 기본으로 교이(膠飴)와 녹용(鹿茸)을 가미한 처방을 투여하였다. 천궁계지탕은 『동의수세보원 신축본』에서 신국양기가 상승하지 못하여 나타난 표병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제시되었

지만¹⁵, 임상적으로 식욕부진과 피부증상, 사마귀를 함께 가진 소음인 소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투여하였다.

교이(膠飴)는 소견중탕, 황기건중탕 등의 구성 약재로 평소 식사량이 적으며 맛에 대해 민감한 환아에게 있어 소아 허약 보완과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해 가미하였다. 녹용(鹿茸)은 『동의수세보원 신축본』에서는 태음인 처방(녹용대보탕, 공진흑원단)¹⁵에 사용되지만, 『동무유고』¹⁶와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¹⁷에 소음인에 배속되거나 소음인에게 현저한 효과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향 연구에서 녹용이 성장 및 발달, 알레르기, 소화기계 병증 및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결과¹⁸ 및 실험실 연구에서도 녹용이 피부 상처 치유와 흉터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기에¹⁹ 소음인 환아의 전신 회복을 고려하여 소량 가미하였다.

첫 외래 방문 3주 후 두 번째 방문에서 병변의 대부분이 육안상 소실되었고 만질 때 느껴지던 통증과 불편감 또한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반흔·색소침착은 없었다. 식사량은 늘었고 수면 중 약간씩 나뉜 땀은 사라졌으며 배변 간격은 2~3일 1회에서 2일 1회로 단축되었다. 세 번째 방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유지되었고, 병변의 완전 소실과 통증·불편감 없음이 지속되었으며 반흔·색소침착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두 번째 방문에는 눈맞춤이 늘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세 번째 방문에는 말수가 늘고 전반적으로 더 활발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환아는 과거 치료 중에도 병변이 증식·재발한 이력이 있어 재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치료하였다. 병변은 육안으로 완전 소실되었지만, 재발 방지 및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처방 후 1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 기간을 두었다. 한 달 반이 경과한 후, 네 번째 외래 방문에서 사마귀 병변은 소실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수면시간은 한약 복용 중 10시간까지 늘었다가 복용 종료 후 8시간으로 감소했으며, 한약을 모두 복용한 후 식사량은 복용 중보다 줄었고 배변 간격은 다시 2~3일 1회로 늘었다. 말수 증가와 활발한

상태는 유지되었다. 네 번째 외래 방문 시, 환아와 보호자는 “약의 맛이 좋아 복용에 거부감이 없어 처방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할 수 있었고, 통증 없이 병변이 빠르게 호전되어 치료 결과에 만족한다”고 진술하였다.

환아는 치료기간 중 사마귀의 소실과 더불어 식욕과 식사량의 증가가 있었으며 이는 소음인의 양난지기(陽煖之氣) 개선 지표인 음식선화(飲食善化)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판단되었다. HPV에 감염되어 광범위하거나 난치성, 혹은 치료 불응성 사마귀를 가진 환자에서는 숙주의 면역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²⁰, 이러한 변화는 환아의 면역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향후 예후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를 종료하였다.

현재까지 사상체질면역학회지에는 사마귀 치료에 관한 증례가 없었고, 천궁계지탕과 관련된 논문도 증후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1편만이 확인되었다¹⁰. 본 증례는 단일 증례라는 한계가 있으나 사상처방인 천궁계지탕을 응용하여 사마귀에 적용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코 밀의 사마귀가 2년 이상 지속되며 냉동치료·레이저치료·면역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던 소아 환아에서 천궁계지탕에 교이와 녹용을 가미한 한약 단독치료를 시행하였고, 치료 3주차 경과 관찰에서 병변의 대부분이 육안상 소실되었으며 이후 네 번째 외래 방문까지 재발이 없어 치료를 종결하였다. 아울러 한약 복용기간 동안에는 식사·수면·배변 등 전신 상태가 함께 호전되었으며, 치료가 진행되며 환아의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가 늘어나는 등 정서적 안정을 동반한 모습도 관찰되었다. 녹용은 일반적으로 태음인 약재로 분류되지만, 소음인 환아에 가미하였음에도 통증·반흔 등의 이상반응은 없었고 오히려 유의한 치료 효과가 관찰되었다. 다만 천궁계지탕 원방과의 직접 비교가 없어 가미의 기여도는 판단할 수 없기에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증례는 소아의 난치성 코밑 사마귀에 천궁계지탕가미방을 투여하여 사마귀의 육안상 완전 소실 및 치료 종결까지 재발되지 않았으며, 치료가 진행되며 환아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모습이 동반됨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한다. 이는 천궁계지탕의 임상 활용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VI. 참고문헌

- Bacelieri R, Johnson SM. Cutaneous warts: an evidence-based approach to therapy. *Am Fam Physician*. 2005;72(4):647-652.
- Lipke MM. An armamentarium of wart treatments. *Clin Med Res*. 2006;4(4):273-293. DOI: 10.3121/cm.4.4.273.
- Zhu P, Qi RQ, Yang Y, Huo W, Zhang Y, He L, et al. Clinical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cutaneous warts (2022). *J Evid Based Med*. 2022;15(3):284-301. DOI: 10.1111/jebm.12494.
- Shin JO, Son JH, Lee J, Kim HS, Ko HC, Kim BS, et al. Nonavalent human papilloma virus vaccine for the treatment of multiple recalcitrant warts: an open-label study. *J Am Acad Dermatol*. 2022;86(4):940-94. DOI: 10.1016/j.jaad.2021.03.074.
- Do Carmo AP, Battle AR, Fragnan NTML, Machado CAS, Constantino-Silva RN, Henrickson SE, et al. Targeting complex cutaneous viral infections in search of inborn errors of immunity. *Acta Derm Venereol*. 2025;105:adv41318. DOI: 10.2340/actadv.v105.41318.
- Clifton MM, Johnson SM, Roberson PK, Kincannon J, Horn TD. Immunotherapy for recalcitrant warts in children using intralesional mumps or Candida antigens. *Pediatr Dermatol*. 2003;20(3):268-71. DOI: 10.1046/j.1525-1470.2003.20318.x.
- Korean Traditional Dermatology Association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Text of Traditional Korean Dermatology & Surgery*. Busan: Sunwoo. 2007: 432-434. (Korean)
- Moon YK, Jeong WY, Shin JH, Kim YB, Nam HJ, Kim KS. Three cases of verruca vulgaris treated mainly with Gwakhyangjeonggisangamibang and moxibustion.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5;28(2):93-101. (Korean) DOI: 10.6114/jkood.2015.28.2.093.
- Jo SJ, Yoon JJ, Kim CY. 11 cases of periungual warts treated by Korean medicin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9;32(3) 224-234. (Korean) DOI: 10.6114/jkood.2019.32.3.224.
- Shin WY, Hyun JO, Choi EY, Kang AM, Kim YH, Jo EY, et al. 3 case reports of Cheongungkyeoji-tang for post-stroke patients with shoulder pain. *J Int Korean Med*. 2006;27(4):936-944. (Korean)
- Olguín-García MG, Peralta-Pedrero ML, Morales-Sánchez MA, Vega-Memije E, Bautista-de Lucio VM. A double-blind randomized study of two doses of oral isotretinoin in the treatment of recalcitrant facial flat warts: impact on quality of life, anxiety, and depression. *Health Sci Rep*. 2025;8(4):e70684. DOI: 10.1002/hsr.2.70684.
- Dall'Oglio F, D'Amico V, Nasca MR, Micali G. Treatment of cutaneous warts: an evidence-based review. *Am J Clin Dermatol*. 2012;13(2):73-96. DOI: 10.2165/11594610-000000000-00000.
- Sterling JC, Gibbs S, Haque Hussain SS, Mohd Mustapa MF, Handfield-Jones SE, Hughes JR, et

- al. British Association of Dermatologist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cutaneous warts 2014. *Br J Dermatol.* 2014;171(4):696-712. DOI: 10.1111/bjd.13310.
14. Xu J, Deng H, Shen X. Safety of moxibustion: a systematic review of case report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4;2014:783704. DOI: 10.1155/2014/783704.
15.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3rd rev. ed. Seoul:Gunja. 2024:134, 138. (Korean)
16. Lee JM, Dongmuyugo, Ryang BM, Cha GS, translators. Seoul: Haedong Uihaksa; 1999: 166-167. (Korean)
17. Lee JM. *Donguisusebowon sasang chobongwon.* Park SS, translator. Seoul: Jipmundang; 2005:347. (Korean)
18. Kim HY, Kim TH, Kim SM, Lee SH, Lee JY. A study on the trends of Korean medicin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focused on deer antler. *J Pediatr Korean Med.* 2023;37(1):45-57. (Korean) DOI: 10.7778/jpkm.2023.37.1.45
19. Zhang G, Wang D, Ren J, Sun H, Li J, Wang S, et al. Velvet antler peptides reduce scarring via inhibiting the TGF- β signaling pathway during wound healing. *Front Med (Lausanne).* 2021;8:799789. DOI: 10.3389/fmed.2021.799789.
20. Zampella J, Cohen B. Consideration of underlying immunodeficiency in refractory or recalcitrant war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Skin Health Dis.* 2022 Feb 9;2(1):e98. DOI: 10.1002/ski2.98.

<저자들의 소속 및 직위>

이혁준/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문수련의

김은진/동국대학교 한방소아과/교수

박성식/동국대학교 사상체질과/교수